

## Hana Market Weekly

# 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자금시장영업부

2024. 8. 12

# 주간 달러/원 동향(8/5~8/9) 및 전망



## 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에 연준의 빅컷 전망이 확산되자 환율은 달러 약세를 반영하며 큰 폭 하락 출발했으나,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위험회피 분위기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에 상승 전환. 이어 미 서비스업 PMI 확장세에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달러가 반등하며 소폭 상승
- 중반, 한국 경상수지 개선 소식에도 BOJ 부총재의 비둘기 발언에 따른 엔화 약세에 일부 연동되며 상승세 지속
- 후반,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뉴욕증시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오프 분위기 속 1370원대 중후반 등락. 이어 주 후반, 예상보다 양호한 미 실업지표에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됨과 동시에 역외 매도세가 유입되며 1360원대로 급락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359.0	1,379.7	1,355.0	1,364.6	+5.6

## 달러/원 전망

- 전주 불거졌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 개선 소식 이후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 여기에 미 물가 발표 및 소비 관련 데이터 역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할 수준의 지표가 예상되는 점도 원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
- 여기에 월간 수출 증가세 지속하는 가운데 양호한 경상수지 흐름에 따른 긍정적 수급 요인도 원화강세 지지할 것으로 보임
- 다만, 중동리스크 관련 지정학적 위기 고조 분위기 등이 다소간 원화강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

예상거래범위
1,355원 ~ 1,375원

# 엔·유로화 동향 (8/5~8/9)



## 유로화 동향

- 주초, 미 서비스업 관련 고용 데이터 호조에 따른 미 경기 침체 불안 완화와 위험회피 심리 진정에 유로화는 강세 출발. 이어 예상보다 부진한 유로존 6월 소매판매 데이터에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약세 전환
- 중반, 독일 수출 급감 소식에 유로존 경제 침체 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타난 측면이 유로화의 추가 약세를 견인
- 후반,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에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일부 진정되자 달러 강세 나타나면서 소폭 약세 시현. 이어 주 후반, 독일 7월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가 전월비 반등했으나 예상에 부합하면서 약보합 마감

## 엔화 동향

- 주초, 미 비농업 고용 충격 여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엔화는 장중 141엔대까지 하락하는 등 강세 보이며 출발. 이어 일본 금융당국 회의 소식에 경계감이 나타나며 소폭 약세로 전환
- 중반, 우치다 신이치 BOJ 부총재의 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도비시한 발언에 146엔대로의 되돌림 시현
- 후반, 미 실업지표의 양호한 결과에 리세션 불안감이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약세 지속. 이어 주 후반,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진정되며 추가 강세는 제한되는 가운데 146엔대에서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911	1.1009	1.0882	1.0916	+0.0005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6.5	147.9	141.7	146.6	+0.1

#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8/5~8/9)



##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된 가운데 미 2년 국채 금리가 26.8bp 급락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급락 출발. 이어 미 서비스 PMI가 51.4로 나타나면서 침체 공포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한은의 대외 충격에 대한 충분한 정책역량 시사 등으로 금리 급등 흐름 전환
- 중반 들어, 국내 6월 경상 흑자 규모가 123억 달러 기록하며 6.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KDI의 8월 경제동향에서의 국내 내수 미약 수준이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의견 피력 등이 상충하며 국고채 금리는 다소 혼조 양상 시현
- 후반 들어, BOJ 부총재의 도비시 언급과 침체 우려 완화 국면 지속 속에 KDI에서 성장 전망을 2.6%에서 2.4% 낮춘 영향 등을 반영하며 중단기 구간 하락 전환한 가운데, 주 후반, 미국 주간실업보험 청구건수가 양호하게 나오자 미 국채시장 약세 분위기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도 중단기 구간 상승 흐름 속에 마감

## 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미국 경제 실업률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 확산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강화 속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급락 출발했으나 이어진 다음 거래일에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ISM 서비스지표가 확장 국면을 보인 양상을 반영하며 3%대 상승 전환
- 중반 들어, BOJ 부총재의 통화 완화 기조 지속 의지 피력 등에 따른 엔캐리 청산 우려 완화 속에 5일 폭락 장세 이후 이틀 연속 상승 흐름 나타냈지만 상승은 전일 대비 약화된 모습
- 후반 들어, 전일 뉴욕증시의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양상을 반영하며 소폭 하락 흐름 보인 가운데, 주 후반 개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가 엇갈린 방향성을 보였음에도 상승 전환하며 마감